도내 기업과 나눔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본격화

바이오진흥원, 생명 존중 교육 · 지역 나눔 행사 · 글로벌 연대 활동 등 연중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도내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은 '도내 기업과 함께 하는 나눔,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바이오진흥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 실천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주력 분야인 바이오·식품 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춰 △취약계층 복지 지원, △생명존중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연탐구수련회'와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형 사회공헌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글로벌 식수 위기에 공감하는 기부마라톤, 지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연말 및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한 기부 캠페인 등 참여형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공동 기부 캠페인' 및 '윈-윈 홍보 전략'을 통해 지역 상생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작정이다.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과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관 카카오채널,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참여 기업의 공익활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마늘 '홍산' 수확 시기가 수확량 좌우

농진청, 남부는 6월 상순 · 중부는 6월 중순까지 재배해야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마늘 '홍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재배 지역에 맞는 수확과 파종 시기를 제시했다.

마늘 '대서', '남도' 종을 심는 남부에서는 9월 중순~10월 초 파종해 5월 중순~6월 상순 수확한다.

재래종을 재배하는 중부는 10월 파종해 6월 중순 수확한다. 하지만, 남부, 중부 모두에서 재배하는 '홍산'은 파종과 수확 시기가 농가 여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연구진이 '홍산' 파종과 수확 시기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는 때도 중요하지만 수확 시기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좌우됨을 확인했다.

'홍산' 수확량은 남부지방인 무안에서는 수확 시기에만 영향이 있었고, 중부지방 태안에서는 파종과 수확 시기 모두 영향을 받았다.

'홍산'은 숙기가 늦은 만생종으로 4월부터 마늘(구)이 커지기 시작해 잎의 절반 가까이가 갈변되는 수확 때까지 지속해서 마늘 무게가 증가한다. 즉, 일찍 수확하면 마늘이 다 자라지 못해 수확량이 줄게 된다.

따라서 전남 무안 등 남부지방에서 '홍산'을 재배할 때는 9월 중순~10월 말 사이 파종하고, 6월 상순까지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충남 태안 등 중부지방에서는 10월 초쯤 심어 6월 중순까지 재배하는 것이 좋다.

'홍산'을 제대 수확하면 10일 먼저 수확할 때보다 수확량을 7~8%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전용 우대보증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11월에 신한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 지원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 금융지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10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본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인하(연 0.8%, 일반 대비 0.2%p 인하)해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충분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협약보증은 22일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 침체,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협약보증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37개사 지정

올해 신규 20개사 선정… 유통분야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1일 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37개 기업을 대표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표기업은 3년차 2개사, 2년차 15개사, 신규 선정 20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식품제조뿐만 아니라 지역 유통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백승하 농식품산업과장,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기업 소개 영상 △전시제품 소개 △지정서 수여 △사업비 집행 매뉴얼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규로 선정된 대표기업 20개사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2: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

신규 선정 20개사를 살펴보면 △창업스타(10개사) : ㈜그린로드, 노이펫바이오, ㈜상상, ㈜성수주조장, 앤제이메디칼(주), 위하다컴퍼니, ㈜유화당, 지평선농부들(영), 홍삼이생강닐때, (유)지호 △성장스타(8개사) : ㈜담꽃, ㈜두손푸드, ㈜디자인농부, ㈜말린, 뽕의도리, (유)아리울수산, (유)유기지기,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리딩스타(2개사) : ㈜윤율, ㈜은성푸드이다.

'전북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은 유망기업을 창업스타 → 성장스타 → 리딩스타 순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별 성장 전략 수립,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식품 제조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가공식품 유통분야까지 확장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1:1 전담 매니저 배치 △성장전략 수립 △역량 강화 컨설팅 등 밀착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원을 받은 졸업기업 20개사는 평균 41.6%의 매출 증가, 41명의 신규 고용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전북 농생명·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오상근 기자

대 · 중소기업 '기술 동반성장' 박차

'2025년 하반기 구매연계 · 상생협력형R&D' 신규과제 모집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구매연계·상생협력형R&D' 신규과제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구매연계·상생협력형 R&D'는 2002년부터 도입된 중기부의 대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기술개발부터 판로 확보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6억 원의 R&D 자금(2년간)이 지원되며,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총 112개 과제다.

이 중 13개 과제는 지난 1월에 선공고를 통해 모집 완료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나머지 99개 과제를 추가 선정한다.

중기부는 그간 '성과확산 행사' 등을 통해 수요기업·중소기업·투자기업 간 협업의 장을 마련, 중장기적인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지원과제당 평균 매출액이 4.3억원(정부지원연구비 1억원 기준)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지원유형은 중소기업이 수요기업 및 투자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세부트랙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구매연계형 R&D'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실제 구매 수요가 있는 수요처와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술개발 이후 구매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복수의 수요처를 확보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 개발 도중 기술 환경이 변해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중기부가 사전 점검을 실시해 개발 목표나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선발된 창업기업의 경우, 이번 구매연계형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두번째 '상생협력형 R&D'는 중기부와 민간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투자기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술 검증, 실증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오상근기자

전북농협, 하절기 대비 '축산물 위생 · 안전 특별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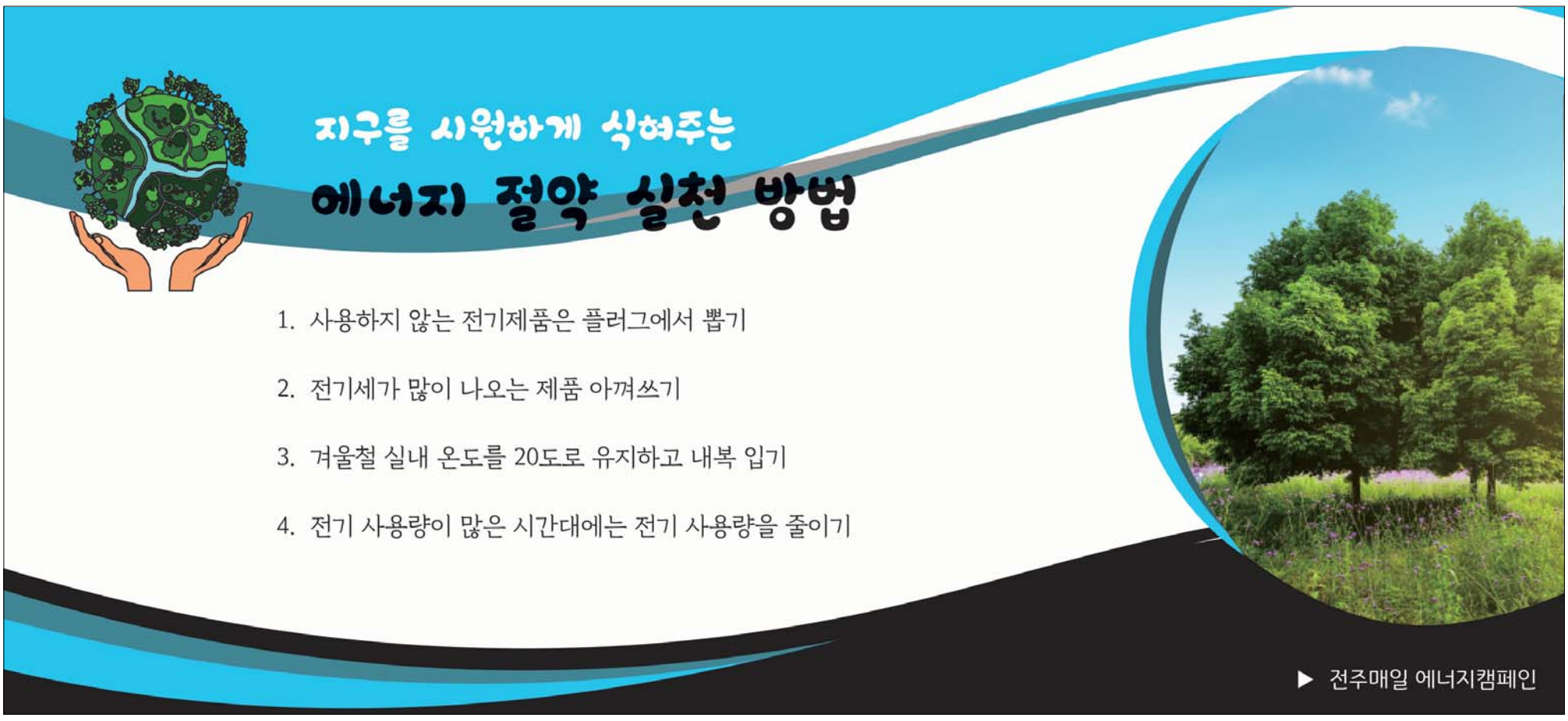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전북농협은 축산물 품질안전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하여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축산물 판매장과 식육가공장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축협은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본부에서는 20개소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지도하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 및 개선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력번호, 원산지 표시사항, 폐기물 관리 및 축산물과 작업장의 위생상태, 냉동·냉장육 보관 및 관리상태, 위생복·위생모 착용 규정 이행 철저, 위생교육 수료증 및 보관증 확인, 삼겹살 품질관리 등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올해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축산물의 부패 및 변질 우려가 높아 더욱 축산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